03

무엇을 배워야 하나?

What should you learn?

이 장은 배움의 내용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거나 지켜야 하는 일이다. 『격몽요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所謂學問者 亦非異常別件物事也
소 위 학 문 자 역 비 이 상 별 건 물 사 야

◁격몽요결▷

이른바 학문이란 것도 평상시와 다른 별건의 일이 아니다.

The so-called study is also not a separate business that is different from the usual.

*所謂: 이른바
*者: ~ 것
*非: 아니다
*別: 따로, 달리
*物事: 사물
*學問: 학문, 배우고 물음
*亦: 또한
*異常: 평상시와 다른
*件: 사건, 물건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배움이 평상시의 일에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학문이라면 흔히 심오한 고담준론(高談峻論)만을 일컫는 데 대한 오해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다. 이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학문의 내용이 일상생활과 관련됨을 말하고 있다. 이 글에 이어서 소개하겠다.

여기서 유학 전통의 학문관을 읽을 수 있다. 뒤에서 소개할 배움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뿌리는 공자의 학문관에서 비롯하며, 서양의 그것과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동아시아의 불교사상이나 노자와 장자의 도가사상과도 다르다.

爲父當慈 爲子當孝
위 부 당 자 위 자 당 효

◁격몽요결▷

부모가 되어서는 마땅히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여야 한다.

As parents, you should love your sons and daughters, and as sons and daughters, you should devote filial piety to your parents.

*爲: 되다
*當: 마땅히 ~해야 한다
*子: 아들, 자식
*父: 아버지
*慈: 자애, 사랑
*孝: 효도

해설

『격몽요결』「서문」에서 "이른바 학문이란 것도 평상시와 다른 별건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에 이어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 말 다음에는 신하 · 부부 · 형제 · 젊은이 · 친구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진다. 이는 배움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심오한 내용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오륜과 같은 규범을 잘 실천하는 일이다. 오륜의 덕목을 누가 몰랐겠는가? 다만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배움은 이와 달라서 온통 입시와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더라도, 규범을 잘 지키도록 배우는 일이야말로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이다.

爲學 在於日用行事之間
위 학 재 어 일 용 행 사 지 간

◁격몽요결▷

학문하는 것은 일상에서 행하는 일 사이에 있다.

The contents of learning are among the things we do in our daily life.

*爲: ~을 하다
*學: 학문, 배움
*在: ~에 있다
*於: ~에
*日用: 날마다 쓰다, 일상
*行: 행하다
*事: 일
*之: ~의
*間: 사이

해설

배움의 내용이 일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움의 대상이 일상과 동떨어진 심오한 무엇이 아니다.

더 소개하면 이 말 뒤에 "만약 평소에 공손하게 거처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을 집행하며 남과 더불어 충직하면, 이것에 이름을 붙여 학문이라 한다"라는 말이 이어진다. 모두 바르게 행동하고 일을 올바르게 처신하는 태도이다.

요즘처럼 아무리 여러 분야의 많은 내용을 배우고 익혀도, 일 처리가 미숙하거나 공손하지 못하거나 남과 충직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선생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배웠다고 할 수 없다.

讀書以資窮理 行善以求復性
독 서 이 자 궁 리 행 선 이 구 복 성

◁증홍생설▷

독서하여 이치 탐구의 바탕으로 삼고, 선을 행하여 본성의 회복을 구한다.

Learners use reading as a basis for the exhaustive search for principle, and seek to restore their nature by doing good.

*讀書: 독서
*資: 바탕, 바탕으로 삼다
*行: 행하다, 실천하다
*求: 구하다, 찾다
*性: 본성, 성품
*以: ~함으로써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善: 선, 착함
*復: 회복하다

해설

이제 배움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되었다.

일상 삶에서 만나는 규범과 일들은 쉽고 간단해 보이나, 그 근거와 까닭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모든 사물과 일에는 이치가 있어서 그것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서의 결과를 그 이치 탐구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본성의 회복'이란 보통 사람들은 타고난 선한 성품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점차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양심의 회복과 통한다.

오늘날의 배움도 양심의 회복이 큰 관건이다. 그것이 안 되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靜則敬直乎中 動則義方於外
정 즉 경 직 호 중 동 즉 의 방 어 외

◁증홍생설▷

머물러 있을 때는 경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활동할 때는 의로써 외모를 반듯하게 한다.

When the Superior Man stays at home, he directs his mind with earnestness, and when he is active outside, he straightens his exterior with righteousness.

*靜: 고요하다, 쉬다
*敬: 잡도리하다, 경
*乎: ~을
*動: 활동하다, 움직이다
*方: 방정하다, 반듯하다
*則: ~할 때에는
*直: 곧다
*中: 마음, 중심
*義: 의로움
*外: 바깥, 외모

해설

배움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마음과 행동을 곧고 반듯하게 하는 방법을 말했다.

이 말은 원래 『주역』에 나온다. 그 원문은 "군자는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반듯하게 한다"라는 '경이직내(敬以直內) 의이방외(義以方外)'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인용하는 글귀이다.

원문 '경'(敬)은 옮기기 어려운 말이다.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을 '하나를 위주로 하여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主一無適]'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음과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하려면 겉과 속을 잘 단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收放心 爲學問之基址
수 방 심 위 학 문 지 기 지

◁성학집요▷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학문의 기초이다.

Recovering the errant mind is the foundation of learning.

*收: 거두어들이다
*放: 놓아버리다
*心: 마음, 본심
*爲: ~이다, ~가 되다
*學問: 학문, 배우고 물음
*之: ~의
*基址: 터, 기초, 토대

해설

배움의 기초는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문 수방심(收放心)은 원래 『맹자』의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다"라는 구방심(求放心)과 같은 말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 착한 본심을 말하며, 오늘날 보통 말하는 양심과 같다. 맹자는 가축이 집을 나가면 사람들이 잘도 찾으면서도, 정작 자기의 본심이 나가면 찾을 줄 모른다고 한탄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까닭 가운데 하나도 다수 학생의 배움의 동기가 그런 착한 마음의 바탕 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욕심을 성취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居家 當謹守禮法 以率妻子及家衆
거 가 당 근 수 례 법 이 솔 처 자 급 가 중

◁격몽요결▷

집 안에 있을 때는 삼가 예법을 지켜서 아내와 자식과 집안사람들을 잘 거느려야 한다.

When you are at home, you should be careful and observe the rule of good manners, and lead your wife, children, and household members well.

*居: ~에 있다, 살다 *家: 집, 가정
*當: ~해야 한다 *謹: 삼가다
*守: 지키다 *禮法: 예법
*以: 수단, 방법, 도구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率: 거느리다, 이끌다 *妻子: 아내와 자식
*及: ~와 *衆: 무리

해설

가정생활을 위해 배워야 할 내용이다. 당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으므로 '아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앞에서도 배움의 내용은 심오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을 말한 적 있다. 당시는 사람이 자라면 누구나 혼인하므로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거의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생활과 자녀 교육에 시행착오가 많아 미숙함을 많이 노출한다. 정규 교육에서 입시에 순위가 밀려 삶의 토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冠婚之禮 當依家禮 不可苟且從俗
관 혼 지 례 당 의 가 례 불 가 구 차 종 속

◁격몽요결▷

관례와 혼례는 가례를 따라야 하지 구차하게 세속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You must follow the coming-of-age ceremony and wedding ceremony according to the Family Rituals of Chu Hsi, not to the worldly customs clumsily.

*冠: 갓, 관
*之: ~의
*當: ~해야 한다
*家: 집, 가정
*不可: ~하면 안 된다
*從: ~을 따르다
*婚: 혼인
*制: 법도, 제도
*依: 의지하다
*禮: 예법
*苟且: 구차하다
*俗: 세속, 풍속

해설

관례와 혼례를 세속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다. 가정생활에서 배워야 할 구체적 내용이다.

등장하는 '가례'는 가정의 관혼상제 예법으로서 남송의 주희가 엮은 『주자가례』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대개 이것으로 관혼상제를 치렀다.

오늘날은 그것이 남아 있는 집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 문제는 각자의 문화나 종교 등의 예법을 따르더라도, 세상의 유행 그것도 예식장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식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이 선생 말씀의 현대적 교훈일 것이다.

兄弟 同受父母遺體 與我如一身
형 제 동 수 부 모 유 체 여 아 여 일 신

◁격몽요결▷

형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나와 한 몸인 것과 같다.

My brothers and sisters share the body inherited from our parents and are all the same as one body.

*兄弟: 형제, 형과 아우
*受: 받다
*遺: 남기다
*與: ~와 함께
*如: 같다
*同: 같이
*父母: 부모
*體: 몸
*我: 나
*身: 몸

해설

일상의 형제 관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다.

이 글을 이해하려면 이어지는 내용을 더 보아야 한다. 곧 형제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생각하여 음식이나 의복이 있든 없든 간에 함께해야 하고, 또 형제에게 착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정성을 들여 충고하여 고치게 해야지 화를 내며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처럼 형제끼리 잘 지내는 일은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고 전통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재산과 집안일로 다투어 남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夫婦之間 不失禮敬 然後家事可治也
부 부 지 간 불 실 예 경 연 후 가 사 가 치 야

◁격몽요결▷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은 뒤에야 가정의 일을 다스릴 수 있다.

Family affairs could be governed only after propriety and respect have been well observed between husband and wife.

*夫: 남편
*之: ~의
*不: ~하지 않는다
*禮: 예의, 예법
*然後: ~한 뒤에
*可: ~할 수 있다
*婦: 아내
*間: 사이
*失: 잃다
*敬: 공경, 공경하다
*家事: 집안일
*治: 다스리다

해설

일상에서 배워야 할 부부 사이의 도리이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부부는 가까운 사이지만 손님처럼 서로 공경해야 한다는 말에서 '공경'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것이 이른바 오륜 가운데 부부유별(夫婦有別)의 참뜻이다.

부부 사이에 사랑만 있고 예절과 공경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동물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당연히 자녀들이 배울 일도 없다.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태도에서 거의 결정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若幼而不敎 至於旣長 則習非放心
약 유 이 불 교 지 어 기 장 즉 습 비 방 심
敎之深難
교 지 심 난

◁격몽요결▷

만약 자녀를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라서는 그른 일에 습관이 들고 다른 곳에 마음이 흩어져 가르치기 매우 힘들다.

If you do not teach your children when they are young,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teach them later. It is because when they grow up they get used to wrong things and set their minds on other things.

*若: 만약 *幼: 어리다
*教: 가르치다 *至於: ~에 이르다
*旣: 이미 *長: 자라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의 어조사
*習: 습관, 버릇되다 *非: 그름
*放心: 마음을 놓아버림 *教: 가르치다
*之: 어조사로서 대명사로서 문장 속의 자녀를 받음
*甚: 매우 *難: 어렵다, 힘들다

해설

배워야 할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옛말에 "어린 자식을 너무 예뻐하면 망친다"라는 게 있다. 야단치고 혼내서라도 바른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리라.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단지 글공부만이 아니라 바른 도리이다.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주 다투는 까닭은 그 이전에 어릴 때 집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레 크고 나서 입시 때문에 청소년들을 야단치고 나무란다. 어릴 때 단속하고 자람에 비례하여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必精思義與非義 義則取之 不義則不取
필 정 사 의 여 비 의 의 즉 취 지 불 의 즉 불 취

◁격몽요결▷

반드시 의와 의가 아님을 정밀하게 생각하여, 의로우면 취하고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않아야 한다.

When you receive something from others, you must carefully examine whether it is righteous or not righteous, and take it if it is righteous, and not take it if it is not.

*必: 반드시
*思: 생각하다
*與: 와
*則: ~하면(~이면) ~하다
*精: 정밀하다, 면밀하다
*義: 의, 옳음
*非: 아니다
*取: 취하다

해설

남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 배워야 할 내용이다.

이 내용은 집안 살림이 가난해서 친구가 주는 물건을 받을 때도 마땅히 받아야 할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할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혼인의 축의금이나 상사(喪事)의 부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해도 좋다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 있어서 공직자들이 과다한 비용의 선물과 주고받는 물품의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선생의 이런 가르침의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놨다고 해서 잘 지킬 것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망을 피하거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법 이전에 도덕성이나 양심의 회복이 관건이다.

接人 當務和敬 最不可恃學自高
접인 당무화경 최불가시학자고
尚氣陵人也
상기능인야

◁격몽요결▷

사람을 대할 때는 화합과 공경에 힘써야 한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학문을 믿고 스스로 높은 체하며 힘을 숭상해서 남을 능멸하는 일이다.

When you face people, you must strive for harmony and respect.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should not do is to believe in learning, to exalt yourself, and to reverence power and humiliate others.

*接: 접하다, 대하다
*務: 힘쓰다
*敬: 공경
*不可: ~하면 안 되다
*學: 배움, 학문
*高: 높다
*氣: 힘
*人: 사람, 남
*當: ~해야 한다
*和: 조화
*最: 가장, 으뜸
*恃: 믿다
*自: 스스로
*尙: 숭상하다, 높이다
*陵: 욕보이다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배워야 할 일이다.

원문 화(和)는 화합 또는 남과 잘 어울린다는 뜻이고, 경(敬)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공손의 뜻에 가깝다. 많이 배웠다고 잘 난 척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물리적 힘이 세다고 남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오늘날 영향력이나 힘을 마구 휘두르는 일을 '갑질'이라 부른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법을 잘 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선생의 이런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들어 봤는지 모르겠다.

克己工夫 最切於日用
극 기 공 부 최 절 어 일 용

◁격몽요결▷

자기를 이기는 공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다.

Studying to subdue one's self is the most urgent thing in daily life.

*克: 이기다
*工夫: 공부
*切: 절실하다, 가깝다
*日用: 일상생활
*己: 자기
*最: 가장, 으뜸
*於: ~에서

해설

공부의 핵심을 강조하였다.

원문 '극기'는 『논어』의 극기복례(克己復禮)에 나오는 말로서, 극기에서 말하는 '자기'(己)에 대하여 선생은 '내 마음이 좋아하여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 하였다. 쉽게 말해 지나친 욕망이다.

사회 대부분의 부조리는 구성원의 탐욕이 서로 갈등하면서 생기지만, 특히 정치 지도자의 탐욕에서 비롯한다. 과거 왕조시대도 그랬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과 가난과 기아 문제도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탐욕과 관련이 있다.

극기를 일상생활의 공부에서 절실하게 본 것은 이런 문제의 핵심을 찌른 가르침이다.

居敬以立其本 窮理以明乎善
거 경 이 립 기 본 궁 리 이 명 호 선
力行以踐其實
역 행 이 천 기 실

◁격몽요결▷

경에 거처하여 그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탐구하여 선을 밝히고, 힘써 행하여 그 참됨을 실천해야 한다.

You must establish the foundation by abiding in earnestness, enlighten the good by exhaustive search for principle, and practice the truth by diligently doing it.

*居: 거하다, 살다
*以: ~으로써(서)
*其: 그(대명사)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乎: ~을
*力行: 힘써 행하다
*實: 참, 진실
*敬: 경, 공경
*立: 세우다
*本: 근본
*明: 밝히다
*善: 착함, 선
*踐: 밟다, 실천하다

해설

배워야 할 공부의 방법을 말했다.

그 조목은 '거경'과 '궁리'와 '역행'이다. 선생은 이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성리학에서 거경궁리를 공부의 방법으로 자주 말하는데, 선생은 역행과 함께 강조하였다.

거경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며, 궁리는 이치를 탐구하는 일이고, 역행은 힘써 실천하는 일이다. 단순화하면 '마음 자세'와 '앎'과 '실천'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공부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人言科業爲累 不能學問 此亦推託之言
인 언 과 업 위 루 불 능 학 문 차 역 추 탁 지 언
非出於誠心也
비 출 어 성 심 야

◁격몽요결▷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시험 공부에 매여 학문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 또한 핑계 대는 말이요, 성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People say, "I can't study because I'm tied up with studying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But this is also an excuse, and it doesn't come from a sincere mind.

*言: 말하다, 말 *爲累: 묶이다, 매이다
*科業: 과거시험에 보는 데 필요한 학업
*不能: ~할 수 없다 *此: 이, 이것(대명사)
*亦: 또한 *推: 미루다
*託: 맡기다 *之: ~하는
*出: 나오다 *於: ~에서
*誠心: 성실한 마음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배움의 중요한 내용이 과거시험과 별도로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과거시험 과목의 내용과 참된 인간이 되는 학문의 내용이 다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양상과 똑같다. 사람답게 되는 공부보다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어찌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간답게 하는 내용이 없겠냐마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그것을 원하기에 학교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렇다.

그러므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聖賢之學 不過修己治人而已
성 현 지 학 불 과 수 기 치 인 이 이

◁성학집요▷

성현의 학문은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The learning of saints and sages is nothing more than the study of governing others after self-cultivation.

*聖賢: 성현, 성인과 현인
*之: ~의
*不過: ~에 지나지 않는다
*修: 닦다
*己: 자기
*治: 다스리다
*人: 남
*而已: ~뿐이다, ~따름이다,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유학이 지향하는 핵심을 말하였다.

성현이 되는 일이 배움의 목표라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은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이다.

수기치인이라는 말은 『논어』에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와 "자기 몸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대개 성현이나 군자는 사회의 리더이다. 리더는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자기 몸을 닦아 수양한 뒤 남을 이끌어야 한다.

오늘날 주변의 리더를 보면, 수양이 안 되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인사들이 꽤 많다. 그래서 세상이 더 혼란스럽다.

修己工夫 有知有行 知以明善 行以誠身
수 기 공 부 유 지 유 행 지 이 명 선 행 이 성 신

◁성학집요▷

몸을 닦는 공부에는 앎과 행동이 있다. 앎으로 선을 밝히고 행동으로 몸을 성실하게 한다.

There are knowledge and action in the study in which we cultivate ourselves. With knowledge, we enlighten the good, and with action, make our bodies sincere.

*修: 닦다 *己: 몸, 자기
*工夫: 공부 *有: 있다, 소유하다
*知: 앎 *行: 행동, 실천
*明: 밝히다 *善: 착함, 선
*以: 수단, 방법, 도구를 나타내는 어조사
*誠: 성실하게 하다 *身: 몸

해설

앞의 수기치인에 이어 배움의 내용으로서 수기의 방법을 말하였다.

"자기 몸을 닦는다"라는 수기는 달리 수신(修身)으로도 부르고 『대학』에 나오며, 이 둘은 보통 수양이라는 말과 함께 쓴다.

여기서 공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지적 공부로서 선이 무엇인지 아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 공부로서 행동을 참되게 하는 문제이다. 앎과 실천은 공부의 두 날개이다.

오늘날 선과 무관한 실용적 앎의 공부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동이 반드시 올바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恢德量 無他工夫 只是矯氣質之一事
회 덕 량 무 타 공 부 지 시 교 기 질 지 일 사

◁성학집요▷

덕량을 넓히는 데는 다른 공부가 없고, 다만 기질을 바로잡는 한 가지의 일뿐이다.

There is no other study to broaden one's virtue, but only one study to correct one's temperament.

*恢: 넓히다
*無: 없다
*工夫: 공부
*是: ~이다
*氣質: 기질, 여기서는 성격
*一: 하나, 한 가지
*德量: 덕스러운 도량
*他: 다른
*只: 다만, 단지
*矯: 바로 잡다
*之: ~의
*事: 일

해설

사람의 덕스러운 도량이 넓지 못한 까닭은 좋지 못한 기질에서 나온다고 한다. 기질은 요즘 말로 성격과 통한다. 그래서 좋지 못한 성격을 바로잡으면, 덕스러운 도량을 넓힐 수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선생의 유명한 기질 변화를 말하는 '교기질'(矯氣質) 사상이다. 사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선생이 말하는 그것은 수양을 통해서 그 기질이 작용하는 성격 또는 성향 교정의 뜻에 가깝다.

그래서 사람이 덕량을 넓히는 공부는 좋지 못한 자기의 성격을 바꾸는 일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